

코로나 방역수칙 이행업소 80만원 지원

2022년도 전북도 예산안 예결특위 심사 통과
3.7% 늘어난 9.1조원, 민생회복자금 + 10만원
자치경찰 복지비 연 50만원, 국가경찰은 제외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속보〉코로나19 방역조치상 영업규제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도내 소상공인을 비롯해 택시기사와 문화예술인 등에 지급될 민생회복자금이 당초보다 10만원

늘어난 80만 원씩 지급된다. 자치경찰은 처음으로 연 50만 원의 복지포인트가 지방비로 지급된다. 반면, 국가경찰은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본지 11월12일자 1면, 2면 보도〉

8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전북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고 이 같은 내용의 심사안을 발표했다.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약 3.7%(3,245억원) 늘어난 총 9조970억원 규모다. 단, 전북도 요구액 보단 소폭(43억원) 줄었다.

새해 예산안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즉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지난달 시작된 국가 차원의 손실보상이 너무 적다며 아우성인 소상공인과 관련업체 종사자들을 추가로 지원할

민생회복자금이 포함돼 눈길이다.

지원 대상자는 모두 7만3,402명(개소)이 꼽혔다.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대상 1,477명(개소), 음식점, 카페, 노래연습장, PC방, 목욕탕, 장례식장, 종교시설 등 운영제한 대상 5만6,911명(개소), 문화예술인, 전세버스와 택시 종사자, 여행사 등 특수 직업군 1만5,014명(개소) 등이다.

지원금은 당초보다 10만원 증액된 1인당 70만 원씩 편성됐다. 재원은 전액 전북도가 부담기로 했고 지급 시기는 내년 2월 중으로 예고됐다.

아울러 지난 7월 출범한 자치경찰에게 지급될 복지포인트도 그 필요성이 인정돼 반영됐다.

지급액은 원안대로 1인당 연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지급대상은 도내 전체 경찰공무원 3,028명 중 자치경찰사수 수행자 757명으로 제한됐다.

따라서 국가경찰사수 수행자(2,271명)는 복지포인트를 못받게 됐다.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국가경찰사수 수행자까지 행진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미하다는 점 등이 논란 끝에 수정 가결됐다.

올해 처음 시범 도입했던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지원사업도 급제동 걸렸



8일 김정수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22년도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다. 내년부터 국비(총사업비 90%) 지원이 중단되는데다 일선 지자체에서 그 실효성마저 의문시 된다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 관련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결과다.

이밖에 타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거나 실효성이 의문시된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기원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아시아권 문화교류 증진사업, 정보화마을 물류비 지원사업 등 30여 건의 사업비가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됐다.

김정수 예결특위위원장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대를 대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전략적 재원 배분이란 중점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그 재원은 고루 투자되었는지,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심사했다”며 “집행부측은 예결위원들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해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등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분야별론 경기부양에 2,322억원, 일자리와 청년 지원에 8,194억원, 전북형 뉴딜사업에 5,102억원, 재난대응체계 구축에 2,497억원, 도민생활과 사회기반시설 개선에 3,674억원 등이 편성됐다.

아울러 수소차나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창출사업비도 1,747억 원이 반영됐다.

이번 심사안은 오는 13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최종 결정된다.

학교 도서관 현대화사업 급제동

초·중·고 100개교 사업비 전액 삭감
생태체험장 조성비는 전액 재반영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속보〉내년에 추진될 예정이던 도내 초·중·고교 도서관 현대화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급제동 걸렸다.

반면, 통째로 삭감됐던 생태체험장 조성사업비는 전액 되살아나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본지 11월29일자 2면 보도〉

8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전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고 이 같은 심사안을 공개했다.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총 4조2,376억 원대로,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9.7%(6,98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학교 도서관 현대화사업은 제동 걸렸다.

앞서 도교육청은 약 30억 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초·중·고교 도서관 100곳의 시설을 일제히 개보수 하거나 비품을 교체 하겠다는 사업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예결위는 문제의 사업비를 통째로 삭감했다. 사서와 같은 도서관 운영 인

력조차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면서 시설 투자만 하겠다는 것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구사일생 했다.

이 사업은 초·중·고교 66곳에 약 38억 원을 투자해 생태체험학습장을 조성토록 계획됐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허술한 관리대책 등이 도마에 올라 전체 사업 물량 50%(33개교)가 축소됐었다.

그러나 예결위 심사에선 모두 되살아나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위치 선정을 둘러싼 논란 끝에 상임위에서 통째로 삭감됐던 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설립사업비 6억여 원도 전액

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보증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중 △스마트 농생명·식품 △미래 지능형 기계 △탄소·복합 소재 △조선해양·에너지 등 주력산업 분야 기업이다.

이번 기술보증 기금은 전북은행과 협력아래 보증비율이 85%에서 100%로 상향되고 보증료는 0.2%포인트 감면되는 등 우대된다. 기금은 총 200억원 규모이고 협약기한은 그 소진시까지 운용된다. /정성학 기자

군산의료원 파업 강행하나

8일 19시 현재 노사협상 교착

〈속보〉도내 최대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이 9일자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본지 12월8일자 1면 보도〉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예고대로 8일 군산의료원 노사를 대상으로 노동쟁의 조정해 착수했지만 이날 오후 7시 현재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노사간 이견이 큰 셈이다. 노동쟁의 조정은 파업에 앞선 마지막 행정절차로, 노사 어느 한 쪽이라도 거부한다면 파업권이 발생한다.

단, 일일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시작된 교섭이라 노사 양측 모두 ‘파국’ 대신 연장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않은 분위기다. 앞서 양측은 간호인력 충원 방법과 임금 인상 시기 등을 놓고 정면 충돌해왔다. 공공병원이란 이름에 걸맞는 직제와 임금체계 개편방안 등도 쟁점화 됐다. 노조측은 최근 노사교섭 결렬을 선언한 채 9일 파업을 예고했고 전북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도 신청한 상태다.

전북도는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과 전담병원 재조정 등 단계별 대응책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학 기자



“이웃사랑 기부문화 확산하자”

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전북도도 이웃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8일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에게 2022년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 원을 전달했다.

송 지사는 “올해도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등 도민이 어려운 곳에 항상 적십자사가 함께 했다”며 “내년에도 적십자사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적십자 회비 모금에 관심 갖고 동참하길 희망한다”고 바랐다. 회비 모금운동은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되고, 전북지사 모금 목표액은 15억7,300만 원이다. 한편, 적십자 회비는 이재민 구호, 취약계층 생활지원, 혈액 사업 등이 사용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된 지로용지, 또는 무통장 입금이나 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정성학 기자

중소기업, 최대 10억 기술보증

도내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은 최대 10억 원까지 기술보증 대출이 가능해졌다.

전북도는 8일 기술보증기금, 전북은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이 같은 내용의 협

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보증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중 △스마트 농생명·식품 △미래 지능형 기계 △탄소·복합 소재 △조선해양·에너지 등 주력산업 분야 기업이다.

이번 기술보증 기금은 전북은행과 협력아래 보증비율이 85%에서 100%로 상향되고 보증료는 0.2%포인트 감면되는 등 우대된다. 기금은 총 200억원 규모이고 협약기한은 그 소진시까지 운용된다. /정성학 기자

독자와 함께 만드는 열린 신문,
새전북신문입니다.

구독신청 063) 230-5712



골프/프렌드
골대터골프

전국 최대 규모
중고 클럽 전문

063) 222-7952
010-3189-7952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17-14 (맨하탄빌라 1층)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늘 푸른 생각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늘 푸른 생각이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탄소운동 실천을
종이컵 줄이기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신문이 만들어 집니다.

새전북신문
THE SAEBUKSINMUN
구독신청 063) 230-5712